남이 낸 1,580건을 먼저 읽고 가상 심사위원 5명에게 세 번 심사받았다

AI 에이전트(Claude Code, Claude Opus 5.5)와 공모전 주제를 고른 하루 — 2026년 10월 20일

1,580건	12건	17개	85건
기존 출품작 전수 분석 (공개 게시판 158쪽)	시즌1 우수작 확인 (공식 블로그)	후보 주제 (재설계안 2개 포함)	가상 심사위원 평가 (5명 × 3라운드)

상황

시즌3 마감(10월 31일)을 11일 앞두고 도전을 결심했다. 손에 있는 건 안내 PDF 한 부와 신청 양식 캡처 한 장뿐이었고 메모해 둔 공모전 사이트 주소도 알고 보니 다른 대회(농산물 가격예측 해커톤)의 것이었다. 감으로 고르면 이미 누가 낸 주제와 겹치거나 배점에서 약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조사·분석·평가는 AI 에이전트에게 맡기고 나는 방향을 정하고 최종 판단을 하기로 했다.

과정 6단계

1. **공모전 파악**
   안내 PDF와 신청 양식을 읽혀 배점(20·25·30·25)과 인정·불인정 기준을 정리했다. 잘못된 사이트 주소를 고치고 마감일은 외부 공고 두 곳으로 교차 확인했다(공식 신청 페이지에는 시즌2 마감일이 남아 있었다).
2. **기존 출품작 전수 분석**
   공개 사례 게시판 1,580건을 0.4초 간격으로 천천히 모아 분야·시즌·주제별로 셌다. 저장할 때 작성자 닉네임은 뺐다.
3. **지난 수상작 확인**
   공식 블로그의 시즌1 우수작 12건을 찾아 게시판 글과 맞춰 보고 공통점을 정리했다.
4. **가상 심사위원 5명**
   "심사위원 페르소나를 만들어 먼저 심사하고 100점에 가장 가까운 주제를 고르자"고 요청했다. AI는 공식 배점표를 기준으로 관점이 다른 다섯 명을 만들고 후보마다 항목별 점수와 감점 사유를 썼다.
5. **세 번의 심사**
   1라운드 6개(1위 87.0) → 감점 사유를 반영한 2라운드 6개(1위 91.0) → '실제로 짧게 해 볼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진 3라운드 7개(1위 90.2). 점수표의 합계와 평균은 스크립트로 다시 계산해 검산했다.
6. **근거 확인**
   후보마다 사실을 따로 확인하고 출처를 붙였다. 예: AED 후보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 2020년 경기도 감사(35.7% 기한 초과·손상), 공공데이터 명세의 "실제와 다를 수 있다" 문구까지 확인.

내가 한 일

- 방향 정하기: "심사위원 5명으로 먼저 심사", "90점 이상으로 다시", "실제 경험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주제로"
- 후보마다 실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최종 선택

AI가 한 일

- 자료 읽기, 웹 검색, 공식 사이트·블로그 확인
- 게시판 수집·집계 코드 작성과 실행, 페르소나 설계와 채점, 검산, 문서 정리

기존 출품작 1,580건에서 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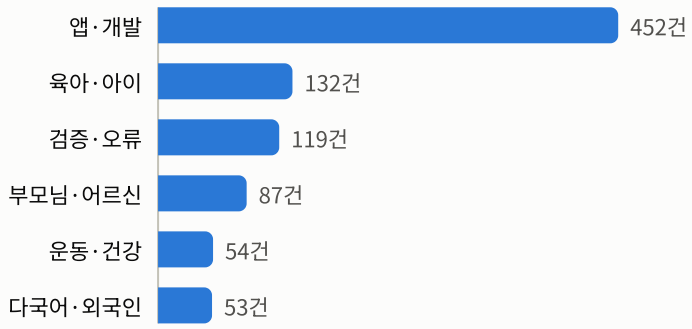
공개 사례 게시판 전체를 2026년 10월 20일에 모아 셌다.

시즌·분야별 출품 수

시즌	생활	지역사회	교육·학습	업무 생산성	합계
시즌1 (4~6월)	145	41	164	113	463
시즌2 (7~8월)	184	47	100	107	438
시즌3 (8/31~, 10/20 기준)	225	65	173	216	679

이미 몰린 주제

제목·한 줄 소개에 키워드가 들어간 출품작 수 (1,580건 중)



관련 사례가 0건이던 주제

- AED·심정지
- 웹 접근성
- 아파트 관리비
- 보이스피싱 전화 모의훈련
- 119 신고 연습
- 대형폐기물
- 사진 속 개인정보 점검

건수는 키워드로 센 근삿값이다. 0건 주제는 걸린 글을 직접 읽어 관련 없는 글을 뺐다.

시즌1 우수작 12건의 공통점

- 12건 중 8건이 도구·시스템을 직접 만들었다.
- 공공데이터를 쓴 사례가 많다(국가 CCTV, TourAPI, 민원 데이터).
- "결정은 사람이", "민감 자료는 안전하게"처럼 책임을 설계에 넣었다.
- 지역사회 우수작은 공고 예시(다국어 안내, 가게 홍보, 행정 안내)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뺀 주제

처음 떠올린 '부모님 의심 문자 판별', '사진 한 장 안전신고', '어르신 키오스크', '다국어 알레르기 메뉴판'은 이미 잘 만든 사례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후보에서 뺐다. 다른 출품작은 베끼지 않았고 주제가 겹치는지 숫자로만 참고했다.

가상 심사위원 5명과 세 번의 심사

심사위원 페르소나 (공식 배점표: 분야 적합성 20 · AI 활용 적정성 25 · 창의성·실용성 30 · 윤리·책임성 25)

관점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감점하는 것	엄격도
AI 기술	AI가 꼭 필요한가, 도구 선택 근거, 절차 재현성	AI가 곁다리인 사례, 과장	높음
AI 윤리·신뢰성	개인정보·저작권·출처, 검증 절차, 사람의 최종 판단	검증 없는 정보 배포, 동의 없는 수집	높음
과학문화·교육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나, 설명이 쉬운가	개발자만 할 수 있는 사례	보통
지역·공공혁신	분야 적합성, 실제 문제 해결, 행정 연계	시연만 하고 아무도 안 쓰는 것	보통
서비스 기획·임팩트	이미 본 아이디어인가, 숫자로 된 성과	흔한 아이디어, 숫자 없는 성과	높음

라운드별 상위 3개 (5명 평균)

라운드	기준	1위	2위	3위
1	배점표	AED 위치 확인 **87.0**	아파트 관리비 비교 84.4	배리어프리 지도 82.4
2	감점 사유 반영 재설계	AED 전수 점검 **91.0**	대형폐기물 사진 안내 90.0	119 신고 모의훈련 89.4
3	실제로 짧게 할 수 있는가	보이스피싱 전화 모의훈련 **90.2**	119 신고 모의훈련 89.8	사진 속 개인정보 점검 88.8
최종	실제로 한 일인가	이 준비 과정 자체 81.8 — 점수는 낮았지만 실제로 한 일		

심사위원들이 공통으로 깎은 이유

- **AI가 보조 역할에 그침** — 현장 조사가 핵심이면 "AI가 꼭 필요했나"를 묻는다.
- **1주일 안의 성과가 약함** — 계획만 있고 숫자로 된 결과가 없으면 점수를 아낀다.
- **일반인이 따라 하기 어려움** — 개발자만 할 수 있는 방법은 확산성이 낮다.

이 세 가지는 다른 공모전이나 기획서를 쓸 때도 쓸 수 있는 점검표가 됐다.

마지막 기준은 실행 가능성과 진실성이었다

점수가 높은 주제들은 현장 조사나 가족과 함께하는 훈련 같은 실제 활동이 더 필요했다. 실제로 한 일만 쓰기로 하고 이 준비 과정 자체를 사례로 골랐다. 모의 심사 점수는 81.8점으로 낮았지만 그대로 냈다.

모의 점수는 같은 AI가 후보를 내고 채점한 비교용 수치이며, 실제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 하기와 책임 있는 사용

따라 하기 5단계 (요청문 전문은 '따라 하기 키트' 참고)

1. 공고문과 배점표를 주고 평가 항목별로 무엇을 보는지 정리한다.
2. 공개된 기존 출품작을 모아 분야·주제별로 센다.
3. 배점표 기준으로 관점이 다른 심사위원 5명을 만들어 점수와 감점 사유를 받는다.
4. 공통 감점 사유를 피하도록 다시 설계하고 같은 기준으로 다시 채점한다.
5.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과 조건, 그리고 진실성으로 마지막에 거른다.

지원사업 신청서, 사내 아이디어 공모, 학교 과제 주제 고르기에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코딩은 필요 없고 대화형 AI와 웹 검색만 있으면 된다.

AI가 먼저 짚은 실수

- 잘못 알고 있던 공모전 사이트 주소
- 공식 신청 페이지에 남은 지난 마감일
- 2020년 기준이라 쓰면 안 되는 오래된 공공데이터
-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공모전(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10/2 마감)

윤리·책임성

- 공개 자료만 사용, 0.4초 간격 수집, 닉네임 미저장
- 다른 출품작은 베끼지 않고 겹침 여부만 숫자로 참고
- 수치마다 원문 확인, 확인 못 한 것은 그대로 표시
- 모의 점수의 한계를 결과마다 명시
- 실제로 한 일만 기록, 신청자 개인정보는 AI에 넘기지 않음

출처

- 2026 AI 활용 사례 공모전 안내 및 유의사항(주최 측 PDF) · https://aichallenge4all.or.kr/competitions/case-contest
- 공개 사례 게시판 · https://ai.software.kr/board?brdTp=CONTEST
- 시즌1 우수작 소개(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aichallenge4all/224375896127 외 3건
- 시즌3 접수 기간(외부 공고) · https://superookie.com/activities/6a97d4a5484fd64fe11240d5
- AED 설치 의무 보도 ·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20918320218447
- 2020년 경기도 AED 감사 보도 · https://kyeonggi.com/article/202202073673644
- AED 공공데이터 명세 · https://www.data.go.kr/data/15000652/openapi.do
-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보도 · https://www.inews24.com/view/2008688